

100발  
100중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고등국어

D



정답 및 해설



# 8

## 한국 문학의 빛깔

### (1) 시조 두 수



####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1쪽

- 01 ① (1) × (2) ○ (3) ○ (4) ○ ② (5) × (6) ○ (7) ○ (8) ○  
 02 ⑤ ③ ②  
 04 ⑦: 이별, ⑧: 착각

- 01 (1) 시간(밤)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5) 화자는 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뿐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 02 이 글에서는 임의 부재라는 부정적 시간을 ‘동지(冬至)」를 기나긴 밤’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계절의 변화를 통해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03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달려가는 화자의 모습을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정서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장된 묘사로 대상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 OX로 팩트 체크

본문 012쪽

- 03 ‘서리서리’는 ‘동그랗게 마는 모양’을, ‘구뷔구뷔’는 ‘구불구불한 모양’으로 펴는 상황과 관계된 표현으로 대조적 의미를 지닌다.
- 04 화자는 임을 원망하고 있지 않으며, 임과 다시 만날 날을 상상하며 이별의 상황을 견디고 있다.
- 05 초장의 ‘밤’은 임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이지만, 종장의 ‘밤’은 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긍정적 이미지이다.
- 08 역설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 13 작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주로 유교적 이념을 노래한 작품은 평시조이다.
- 14 평시조와 사설시조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14~019쪽

- |               |                        |      |               |      |
|---------------|------------------------|------|---------------|------|
| 1 ④           | 2 ②                    | 3 ②  | 4 ⑤           | 5 ④  |
| 6 ①           | 7 ⑤                    | 8 ④  | 9 ②           | 10 ④ |
| 11 ④          | 12 ①                   | 13 ① | 14 동지→를 기나긴 밤 |      |
| 15 긍정적 시간, 연장 | 16 서리서리 너혔다가, 구뷔구뷔 퍼리라 |      |               |      |

- 1 (가)의 화자는 임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는 임이 돌아올 날을 상상하며 그리움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② (나)의 화자는 임이 온다고 하여 저녁을 일찍 지어 먹고 임을 기다리고 있다. ③ (나)의 종장에서 화자는 임을 만나기 위해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다. ⑤ (가)에서는 동짓날의 긴 밤을 잘라 이불 아래에 넣었다가 임이 오시는 날 밤에 다시 펼쳐 길게 만들고 싶다는 참신한 발상을 사용하고 있다.

- 2 ①, ③, ④, ⑤는 모두 ‘임에 대한 그리움’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②에는 술을 먹자는 호탕한 태도가 나타나 있다.

- 3 ④와 ⑤의 ‘밤’은 모두 추상적 개념이며, 이를 각각 ④와 ⑤에서 구체적 사물처럼 형상화한 것이다.

- 4 임과 재회하게 되는 ④이 오면 임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화자의 태도는 (가)에서 확인할 수 없다. 단지 임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다.

**오답 해설** ③ ⑦은 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느껴지는 주관적인 시간인데, ⑤에서 임이 부재하는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 화자가 한 행동이 ④의 시간에 영향을 주어 실제로 ④이 일어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5 (가)는 <보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임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참신한 별상과 순우리말로 된 음성 상징어의 사용을 통해 진솔하게 표현함으로써 기녀 시조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대구와 대조법은 사용되었으나 연쇄법은 사용되지 않았고, 대구와 대조는 기녀 문학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다. ② 해학과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가) 및 <보기>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⑥ 사설시조에 대한 설명이다.

- 6 화자는 시적 대상인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며 (ㄱ)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싶어 한다. (ㄴ)

**오답 해설** ㄷ. 임과 재회를 약속한 적이 있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7 이 글은 ‘시간’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했고, <보기>는 ‘늙음’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만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난다. ②~④ 이 글과 <보기> 모두에 나타나지 않는다.

- 8 이 글에는 실제로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상상력에 의해 구체화한 부분이 나온다. 이는 (b) 전월에 남은 흥(興)을 전나귀에 모두 싣고 오겠다는 발상, (d) 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시각화한 발상과 유사하다. 또 (e) 가슴에 창을 내고 답답할 때마다 여닫아 보겠다는 발상은 이 글에서처럼 시간을 잘라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겠다는 발상과 유사하다.

**오답 해설** (a) 학문에의 정진, (c) 두 아우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는데 이 글에 사용된 것과 같은 발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 9 ㄱ. 이 글에서는 ‘밤’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잘라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낸다고 하였고, <보기 1>에서는 임이 못 오는 이유로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하고 있다. ㄹ. 이 글에서는 추상적 ‘시간’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 <보기 1>의 종장에서는 임이 못 오게 하는 사물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한편 연쇄법이라는 참신한 방법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ㄴ, ㄷ은 이 글과 <보기 1>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이 글은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임에 대한 연모의 정을 표현한 시조이다. 의태어의 사용, 비유법 등의 표현 기교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나, 시어의 의미를 점충적으로 확대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서리서리, 구뷔구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조는 3(4)·4조 4음보의 정형률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③ 시각, 촉각 등 감각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⑤ 전체적으로 한자어보다는 우리말을 잘 살려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11 중장의 ‘서리서리’는 곧게 펴는 이미지가 아니라 잘 말아 놓는 이미지이고, 종장의 ‘구뷔구뷔’는 구불구불하게 마는 이미지가 아니라 펴는 이미지로서, 이 둘은 곡직(曲直)의 대립 관계이다.

12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잘라 내어 이불에 포개 넣어 놓았다가 임이 오시는 날 다시 붙이겠다는 내용에서 작가의 기발한 창상과 상상력을 살펴볼 수 있다.

13 화자는 ⑦에 대해 임이 부재한 밤으로 지루하고 고독한 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⑧은 임과 함께하는 밤으로, 아쉽고 짧은 밤으로 인식하고 있다.

###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20~027쪽

- |  |                     |      |          |     |
|--|---------------------|------|----------|-----|
| 1 ③                                      | 2 ②                 | 3 ④  | 4 ⑤      | 5 ③ |
| 6 서리서리, 구뷔구뷔, 곰뵈님뵈 님뵈곰뵈, 천방지방 지방천방, 워렁충창 |                     |      |          |     |
| 7 어른 님 오신 날 밤                            | 8 ①                 | 9 ③  | 10 ④     |     |
| 11 ②                                     | 12 보션 버서, 워렁충창 건너가서 |      | 13 해설 참고 |     |
| 14 해설 참고                                 | 15 해설 참고            | 16 ② | 17 해설 참고 |     |

1 (가)는 종장의 ‘구뷔구뷔 펴리라’에서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임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은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고, (나)는 종장의 ‘속였구나’와 종장의 ‘하괘라’에서 영탄적 표현을 통해 ‘주추리 삼대’를 사랑하는 ‘임’으로 착각한 상황에 대한 실망감과 겸연쩍음을 등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는 ‘워렁충창’이라는 의성어가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② (가)에는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에서 가정적 상황을 제시하여 임이 오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나, (나)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에는 자조적 어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는 종장에서 자조적 어조가 나타나지만 이는 자신의 행동이 남을 웃길 뻔 했다고 인정하는 의미로 자조적인 것이지, 이를 통해 과거의 행동에 대해 자신을 꾸짖는 마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 모두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2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임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과 임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가), (나) 모두와 관련 없는 내용이다. ⑤ (가)는 ‘동지시들 기나긴 밤’과 ‘어른 님 오신 날 밤’이 대비되기는 하지만, 운명에 대한 극복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나)는 대비적 시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3 (가)는 기녀 시조, (나)는 사설시조, <보기>는 사대부의 시조로, (가)와 같은 기녀 시조뿐 아니라 <보기>와 같은 사대부의 시조에서도 세련된 표현 기교가 사용되었다. 또한 시조 문학의 한 부류

였던 기녀 시조와 사설시조가 조선 시대 시조 문학의 전형을 이룬다고도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보기>는 평시조로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사설시조로 초장과 중장이 평시조보다 길지만, 역시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가)의 종장의 첫 음보는 ‘어론 님’이고, (나)의 종장의 첫 음보는 ‘모저라’이며, <보기>의 종장의 첫 음보는 ‘강산(江山)은’으로, 모두 3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③ (가)와 같은 기녀 시조는 사대부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시조의 작자층 확대에 기여했으며, (나)와 같은 사설시조를 통해 평민층에도 시조가 확대되었다. ⑤ (가)와 같은 기녀 시조는 사대부 시조와 달리 자신들의 애정과 이별의 문제를 진솔하게 노래함으로써 감동과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나)와 같은 사설시조도 주로 세태를 풍자하거나 삶의 애환을 해학적으로 노래하였다.

4 (가)와 <보기>는 부재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시조이다. (가)와 <보기>의 작가인 황진이가 살던 조선 시대에 가부장제의 모순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두 작품 모두 가부장제의 모순이 드러난다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는 여인의 용기가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보기> 모두 시조의 형식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② (가)와 <보기> 모두 주로 순우리말로 표현되어 있다. ③ (가)는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보기>는 이별의 안타까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④ (가)와 <보기>의 작가인 황진이는 조선 시대의 기녀였으며, 진솔하게 애정 문제를 표현하고 있다.

5 ㄴ: <보기 1>에 따르면 정해진 시조의 형식이 표현의 부담을 줄여 준다고 하였으므로, 시조의 작가는 내용의 창안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시조 형식의 정형성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ㄷ: 시조의 형식이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시조의 작가는 내용을 통해 형식을 내면화할 수 있었다.

**오답 해설** ㄱ: 시조의 형식은 이미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시조의 작가가 형식을 창안할 필요는 없었다. ㄹ: 시조의 주제는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8 (가)에서는 중장과 종장이 대구를 이루고 있고, (나)에서는 ‘곰뵈님뵈 님뵈곰뵈 천방지방 지방천방’에서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② (나)에서 ‘살뜰이도’는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매우 자극하다’는 의미이다. ‘주추리 삼대’가 화자를 속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반여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에는 반여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나)에서 ‘주추리 삼대’를 애타게 기다리던 임으로 착각한 화자가 엄지락뒤치락 허ング리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통해 대상을 희화적으로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에서는 희화화된 표현을 찾을 수 없다. ⑤ (가)와 (나) 모두 우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9 (가)에는 ‘서리서리’, ‘구뷔구뷔’, (나)에는 ‘곰뵈님뵈 님뵈곰뵈 천방지방 지방천방’, ‘워렁충창’, <보기>에는 ‘똑똑’이라는 음성 징어가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가), (나)와 <보기> 모두 시신의 이동에 의한 시상 전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처음과 끝에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는 수미상관은 <보기>에만 사용되었다. ④ (나)의 ‘워렁충창’에서 청각적 심상을 느낄 수 있으나, (가)와 <보기>에는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지 않았다. ⑥ <보기>에만 경어체가 사용되었다.

10 ㄹ은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했음을 자각하는 부분이지, 화자가 사랑하는 임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⑤ ㅁ에서 화자는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밤이었으나 다행이지 만약 낮이었다면 남들이 자신의 행동을 보고 웃었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애써 합리화하고 있다.

11 ㄱ: (나)와 <보기 1>의 중장에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 ㄷ: (나)에서는 화자가 임이 온 줄 착각하여 허겁지겁 달려가는 장면

을 나열하고 있으며, <보기 1>에서는 임이 오지 못하는 이유를 나열하고 있다.

**오답 해설** ㄹ. <보기>의 화자가 ‘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시적 대상과 대화를 나누고 있지는 않다.

### 13 모범 답안

⑦ 은	화	자	가	독	수	공	방	하	는	외	로	운	밤
이 나 ,	⑦ 은	화	자	가	임	과	함	께	하	는	밤		
이 다 .	또 한	⑦ 은	길	게		느	껴	져		지 르	한		
밤 이 나 ,		⑦ 은	짧	게		느	껴	져	아	쉬	운	밤	
이 다 .													

### 14 모범 답안

<	보	기	>	는	사	대	부	가	지	은	평	시	조	로
사	대	부	의	풍	류	와	자	연	친	화	적	인	태	도
드	러	나	있	으	며	한	자	어	를	많	이	사	용	하
있	다	.	반	면	에	(	가	)	는	기	녀	시	조	로
남	녀	의	정	을	섬	세	하	고	우	아	하	게	표	현
고	있	으	며	순	우	리	말	을	사	용	하	여	정	서
진	솔	하	고	생	동	감	있	게	드	러	내	고	정	서
할	시	간	을	간	절	히	기	다	리	고	있	다	.	.

### 15 모범 답안

<	보	기	>	의	화	자	는	오	지	않	는	임	에
대	한	원	망	을	드	려	내	며	임	을	야	속	하
여	기	고	있	는	데	반	해	,	(	가	)	의	화
는	임	을	그	리	워	하	며	임	이	들	아	와	함
할	시	간	을	간	절	히	기	다	리	고	있	다	.

16 그: <보기>의 화자는 죽은 누이와 극락에서 재회하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가)의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며 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ㄹ: <보기>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 세계관으로 극복하고자 하고 있으며, (가)는 동짓날의 긴 밤을 잘라 내어 임이 오시는 날 밤에 붙이겠다며 상황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17 모범 답안

(	나	)	는	‘	초	장	-	중	장	-	중	장	’	의	3	단
구	성	을	취	하	고	있	고,	<	보	기	>	는	‘	기		
-	서	-	결	’	의	3	단	구	성	을	취	하	고	있	다.	
또	한	(	나	)	는	증	장	을	감	탄	형	’	모	쳐	라	
로	시	작	하	여	화	자	의	고	조	된	정	서	를	표		
현	하	며	시	상	을	전	환	하	고	있	고,	<	보	기		
는	결	사	를	감	탄	사	‘	아	아	’	로	시	작	하	여	
화	자	의	고	조	된	정	서	를	표	현	하	며	시	상	을	
전	환	하	고	있	다.											

### (2) - ❶ 속미인곡 정철

####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분문 031~035쪽

01 (1) ○ (2) ○ (3) ✗ (4) ○ (5) ○ (6) ○

02 ①

03 ⑤ 04 ④ ④: 보조적, ⑥: 작가

05 (1) ○ (2) ○ (3) ✗ (4) ○ (5) ○

06 ④

07 ③, ④ 08 (1) 지체 (2) 춘한고열 (3) 죽조반

09 (1) ○ (2) ○ (3) ○ (4) ✗ (5) ✗ (6) ○ (7) ○

10 ④

11 ① 12 ⑦: 낙월, ⑨: 구준비

01 (3) 여인 2는 임의 결에서 지내던 시절을 떠올리며 이별의 원인을 추측하고 있을 뿐, 계절의 변화도, 이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02 중심 화자인 여인 2와 보조적 화자인 여인 1의 대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순우리말을 사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리고 있다. ③ 화자는 두 명의 여성(여인 1, 여인 2)이다. ④ ‘데 가는’ V며 각시 V 본 듯도 V 흔들이고’와 같이 4음보 연속체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여인 2는 임, 즉 임금을 염려하며 그리워하는 마음을 보이고 있다.

03 ⑤, ⑥, ⑦은 모두 여인 2를 가리킨다.

**오답 해설** ⑦은 여인 1, ⑤은 임을 가리킨다.

04 이 글은 두 명의 여성 화자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즉, 여인 2는 주된 이야기를 하고 여인 1은 보조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구성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중심인물의 사연을 더욱 생생하고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

05 (3) 여인 2가 산을 오르고 물가를 찾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이지 임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다.

06 현실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보다는 이별한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고 체념하며 걱정하는 수동적인 여인의 모습이 나타난다.

**오답 해설** ② ③에서 여인 1이 여인 2를 위로하자 여인 2는 ④와 ⑤에서 여인 1에 게 하소연을 한다. 즉, 두 여인이 대화를 하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③ 중심 화자인 여인 2를 통해 임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⑤ 작가인 정철은 남성이지만 관직에서 물러나 임금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심정을 임과 이별한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그려 냈으므로써, 자신의 충절을 애절하게 전달하고 있다.

07 여인 2는 임의 소식을 들으려 ‘눕픈 띠’에 오르기도 하고 ‘믈 그’에 가기도 하였는데, ‘눕픈 띠’에서는 ‘구름’과 ‘안개’가, ‘믈 그’에서는 ‘부람’과 ‘물결’이 여인 2와 임 사이를 방해하고 있다.

09 (4) 여인 1은 여인 2의 하소연을 유발하는 보조적 인물이며, 여인 2는 주도적 인물로 여인 1의 질문에 답하면서 작품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한다. (5) 여인 2는 처음부터 끝까지 임을 걱정하며 그리워하기만 할 뿐 원망의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10 이 글에서는 여성을 화자로 설정하여, 임과 이별한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 화자는 이별의

안타까움을 애질하고 섭세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시대상을 나타내는 것과 여성 화자와는 관련이 없다.

- 11 여인 1은 여인 2에게 질문과 위로, 혹은 조언을 건네고, 여인 2는 여인 1에게 하소연하고 있다. 따라서 임을 사이에 두고 갈등하는 관계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⑤ 여인 2는 작품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작가의 처지를 대변하며 주제를 구현하는 등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여인 1은 질문과 위로를 통해 여인 2의 하소연을 유도하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 ③ 여인 2는 달이 되어 멀리서 임을 보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여인 1은 여인 2에게 궂은비가 되어 임의 가까이에서 임과 함께하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조언하고 있다. ④ 여인 2가 자책과 한탄, 하소연을 하면 여인 1은 그런 여인 2를 위로하는 역할을 한다.

## OX로 팩트 체크

본문 036쪽

- 01 임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드러나 있을 뿐 원망은 드러나 있지 않다.
- 04 여인 1이 보조적 기능, 여인 2가 중추적 기능을 하고 있다.
- 06 작가는 이미 관직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작품을 지었다.
- 09 여인 2는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산에서 물가로 이동했지만 임과 이별한 여인 2의 처지는 변하지 않고 있다.
- 10 ‘구름, 안개, 브람, 물결’ 모두 여인 2와 임의 사이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 12 ‘빈 빗, 반벽청등(半壁青燈)’과 같은 객관적 상관물이 여인 2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소재로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에 여인 2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는 않다.



##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38~043쪽

1 ④      2 ④      3 ②      4 ③      5 ④

6 ②

7 작가는 임금에 대한 자신의 변함없는 충성을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썼을 것이다.

8 임금      9 ②      10 ④

11 ⑦: 구름, 안개, 바람, 물결 / ⑧: 빈 배, 반벽청등

12 ⑥, ⑨

13 ⑤      14 ⑦: 낙월, ⑧: 궂은비

- 1 ‘춘한고열(春寒苦熱)’과 ‘추일동천(秋日冬天)’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는 임에 대한 염려를 드러내는 것으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여인 2는 낮 동안 산과 물가를 헤매고 다니다가 해가 진 후 초가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② 4음보가 반복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반기시는 놋비치 네와 엊디 다른신고’, ‘를 ㅋ 툰 얼굴이 편히실 적 멋 날일고’ 등에서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여인 2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낙월(落月)’을 통해 소극적 애정관을, ‘구준비’를 통해 적극적 애정관을 표현하고 있다.

- 2 여인 2는 집에 돌아와 뜻잡이 들었다가 꿈속에서 임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닭 소리 때문에 잠이 깨게 되므로, ‘오면된 계성’은

여인 2와 임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현상 빅옥경’은 과거에 여인 2가 있던 곳이자, 현재 임이 계신 곳이다. ② ‘반벽청등’은 초가집에 홀로 켜져 있는 등으로, 여인 2의 외로움을 심화시킨다. ③ ‘옥 ㅋ 툰 얼굴’은 과거에 고웠던 임의 모습으로, 여인 2가 애써 알아낸 임에 대한 소식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어엿쁜 그림제’는 여인 2의 불쌍한 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임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 3 여인 2는 뱃길을 보기 위해 물가에 갔으나 사공은 없고 빈 배만 있는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즉, 사공이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여인 2가 사공을 원망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해설 ① 여인 2는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산에 올랐다가 물가로 가고 있다. ③ 여인 2는 임과 이별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으며, 임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걱정하고 있다. ④ 여인 2는 자신이 임과 이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자책하거나(‘내 몸의 지은 죄 ㅋ 티 빠혀시니’) 조물주의 탓이라며 운명론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조물(造物)의 탓시로다’). ⑤ 여인 2는 뜻잡이 짐작 들었을 때 꿈에서 임을 만나고 있다.

- 4 그, 그: 여인 2가 ‘뫼 – 를 ㅋ – 모침’으로 이동하는 동안 해가 지고 밤중이 된다. 르: 여인 2는 하루 종일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느라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오답 해설 ㄴ. ‘눕픈 꾸’는 화자가 임의 소식을 듣기 위해 찾아간 곳으로 임의 소식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다. ㅁ. 여인 2는 꿈에서 임을 만났으나 닭 우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게 되자 닭을 원망하고 있다.

- 5 ④은 ‘달은 물론이고’로 해석할 수 있다. 문맥상 여인 1이 달이 아닌 궂은비를 추천하고 있으므로, ‘달은 생각하지 말고’는 어색한 해석이다.

오답 해설 ① ⑦은 원래 ‘형체’를 의미했으나 현재는 ‘안면’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② ⑦은 ‘진지’의 뜻이고, ⑧은 ‘산’의 뜻이다. ③ ⑨은 원래 ‘불쌍하다.’를 뜻했으나 현재는 ‘예쁘다.’로 그 의미가 이동하였다. ⑤ ⑨은 적극적인 애정관이 나타난 소재로, 여인 1이 여인 2에게 조언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 6 보조적, 기능적 역할을 하는 인물은 여인 1이므로 ⑥가 이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⑧, ⑨, ⑩, ⑪은 모두 여인 2를 가리킨다.

- 9 의인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하늘하리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를 훑라’ 등에서 설의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를 ㅋ 툰 얼굴’, ‘옥 ㅋ 툰 얼굴’ 등과 같이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두 명의 여성 화자가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빈 빗’, ‘반벽청등’과 같은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있다.

- 10 을녀가 임과의 재회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비극적 초월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모습은 죽어서 낙월이 되겠다는 것에서 확인된다. ‘모침 찬 자리’는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을녀의 쓸쓸한 처지가 드러나는 곳일 뿐이다.

오답 해설 ① 을녀는 임과 멀리 떨어져서 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님다히 소식’을 알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다. ② 을녀는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즉 임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눕픈 꾸’에 오르고 ‘를 ㅋ’에 간 것이다. ③ ‘구름’, ‘안개’, ‘물결’과 ‘오면된 계성’은 을녀와 임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이다. ⑤ 을녀가 죽어서 낙월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는 임을 만날 수 없다는 좌절의 심화에서 비롯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 13 이 글은 두 화자가 대화하는 형식이 맞지만, 중심 화자인 여인 2가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보기>는 여성

화자 한 명의 독백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하늘하라 원망<sup>호</sup>며 사름이라 하를<sup>호</sup>라' 등에서, <보기>는 '짓노니 한숨이오 딱니 눈들이라' 등에서 대구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② 이 글의 화자가 죽어서 '낙월'이 된다고 한 것이나 <보기>의 화자가 죽어서 '범나비'가 되겠다고 한 것은 모두 윤회론적 인식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④ <보기>의 화자는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에서 보듯이 임에 대한 원망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44~051쪽

- |      |      |      |          |      |
|------|------|------|----------|------|
| 1 ④  | 2 ⑤  | 3 ⑤  | 4 ③      | 5 ③  |
| 6 ④  | 7 ③  | 8 ④  | 9 해설 참고  | 10 ⑤ |
| 11 ③ | 12 ⑤ | 13 ① | 14 해설 참고 |      |

1 여인 2는 '쉼'에서 임을 만나기는 했지만 새벽닭 소리에 마음에 먹은 말을 하지 못한 채 깨어났다. 그러므로 대상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여인 2는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놈픈 괴'에 올라가지만 구름과 안개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다. ② 여인 2는 '들?'에 가서 자는 해를 바라보며 외로움을 느낀다. ③ 여인 2가 집으로 돌아오자 벽 가운데 청둥만 커져 있는데 이는 여인 2의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⑤ 여인 2는 잠결에 일어나서 '창(窓)'을 열고 달을 보며, 죽어서 '낙월'이 되고 싶다고 한다.

2 여인 1이 조언하는 보다 진취적인 자세는 '구준비'에서 나타난다. '구준비'는 여인 2가 임 결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3 '안개'는 여인 2와 임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⑤의 '약수' 역시 임과 화자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눈'은 하늘에서 솔숲에 내리는 자연 현상이다. ② '낙락장송'은 수양대군에게 살해된 충신과 지사들을 의미한다. ③ '눈'은 외부와 화자를 격리시키는 자연 현상이다. ④ '구복'은 먹고살기 위하여 음식물을 섭취하는 입과 배를 의미한다.

4 '헤쓰며'는 '해매며', '오던된'은 '방정맞은', '결의'는 '잠결에', '어엿본'은 '가엾은', '들이야 쿠니와'는 '달은 물론이고'의 뜻이다.

5 '설워 풀려혜니 조물의 타시로다.'에서는 임과 이별한 상황을 자신의 운명으로 돌리는 작가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를 임금에 대한 서운함으로 감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임금을 떠난 작가의 처지를 임을 읽은 여인의 모습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군신 관계를 우의적으로 형상화하여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내 몸의 지은 죄 꾸<sup>기</sup>티 빠혀시니'에는 산같이 쌓여 있는 자신의 죄를 탓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④ 임금의 곁에 머물지 못하는 작가의 처지에서 기인한 그리움으로 인해 꿈에서 임을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죽어서라도 임 곁에 있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 부분으로, 임금을 연모하는 작가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6 '구름, '안개', '느림', '들결'은 여인 2와 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신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들이 작가의 체념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⑤ '반(半)이 나마 늘거세라'는 여인 2가 임의 곁에 있었을 때와 대조되는 꿈속의 임의 얼굴로, 자신이 임의 곁에 없는 지금 임의 얼굴이 상했다는 표현이므로, 자신이 다시 임금을 보좌해야 한다는 것을 긴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7 ⑦~⑪ 모두 시각적인 인상을 준다.

오답 해설 ⑫은 화자의 분신으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한다. ⑦과 ⑯도 마찬가지로 죽어서라도 임과 함께하고 싶은 여인 2의 마음을 드러낸다(⑪). 다만 ⑬은 소극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반면, ⑭과 ⑮은 임의 곁에 밀착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낸다(⑫, ⑯).

8 ⑪는 임금에 대한 작가의 서운함과 관련이 없으며, ⑫에는 임금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⑪에서는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을 이별했다고 했으며, ⑫에서는 하계에 내려왔다고 했으므로, 이 글과 <보기> 모두 작가는 자신의 처지를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온 선녀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⑯의 '아양과 교태', ⑭의 '연자분'이라는 시어를 통해 이 글과 <보기> 모두 여성 화자를 설정하여 작품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⑮에서는 '설워'에서, ⑭에서는 '시름'에서 화자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⑤ ⑬의 '낙월(落月)'과 ⑭의 '범나비'는 화자의 분신이라 할 수 있다.

9 모범 답안

'낙월'	은	임	이	계	신	곳	을	멀	리	서	극
잠	만	비	출	수	있	는	수	등	적	이	고
인	표	현	이	다	.	반	면	구	준	비	는
적	적	실	만	큼	오	랜	시	간	등	안	임
인	이	에	있	을	수	있	다	는	점	에	가
까	에	있	을	보	다	적	극	적	으	로	드
대	한	사	랑	을	보	다	적	극	적	으	내
소	재	이	다								는

10 이 글에서 의성어를 사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하늘하라 원망<sup>호</sup>며 사름이라 하를<sup>호</sup>라' 등에서 대구법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하늘하라 원망<sup>호</sup>며 사름이라 하를<sup>호</sup>라'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내 몸의 자은 죄 꾸<sup>기</sup>티 빠혀시니' 등에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④ 자연물인 '낙월(落月)'에 화자의 감정을 투영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11 여인 2는 꿈속에서 잠깐 임을 보기는 하나, '드온의 머근 말승 슬<sup>국</sup>장 숲자<sup>하</sup>니 / 눈들이 바라나니 말승인들 어이<sup>하</sup>며'에서 보듯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⑧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희 다 더 저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는고 / 어와 네여이고'를 통해 해가 다 저문 저녁에 두 여인이 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출하리 둘<sup>기</sup>?의 가 빙길하나 보라<sup>하</sup>니 / 브람이야 둘결이야 어동정 된<sup>기</sup>이'에서 알 수 있다. ④ '모첨(茅簷) 촌 자리의 밤둥만 도라오니 / 반벽청등(半壁青燈)은 놀 위<sup>기</sup>여 불갓<sup>기</sup>고'에서 알 수 있다. ⑤ '결의 니러 암자 창(窓)을 열고 브라보니 / 어엿은 그림재 날 조출 쁘이로다'에서 알 수 있다.

12 ⑦은 화자의 잠을 깨워 임이 부재한 현실 상황을 깨닫게 하고, ⑮은 멀리 떨어져 있는 노모에게 소식을 전할 수 없는 화자의 현실을 깨닫게 하는 소재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⑦은 꿈에서나마 임을 만나는 화자를 방해하는 소재이고, ⑮은 역시 날지 않음으로써 편지를 전하지 못하므로 화자의 소망을 실현시켜 준다고 볼 수 없다. ②~④ ⑦과 ⑮은 모두 감정 이입이나 이상향이나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는 관련이 없다.

13 <보기>에서는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자신의 결백을 알고 있다 고 하면서 화자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글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으로 임의 마음이 변했다고 자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이 글과 <보기> 모두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⑤ 이 글과 <보기> 모두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 바꾸어 표현하는 충신연주지사(忠信戀主之詞)이다. ④ 이 글의 '빈 빙'과 '반벽청등(半壁青燈)'은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이고, <보기>의 '접동새'는 화자의 감

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감정 이입의 대상은 객관적 상관물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 14 도법 달안

[ A ]	에	서	는	'	낙	월	',	,	<	보	기	>	에	서	
는	'	범	나	비	'	가	되	어	죽	어	서	라	도	임	을
따	르	고	자	하	는	일	편	단	실	의	종	정	을	드	려
내	고	있	다	.											

##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58~063쪽

- 1 ③      2 ③      3 ②      4 ①      5 ③  
6 아이불비(哀而不悲)      7 ④      8 ④      9 향토적  
10 ③      11 ①      12 ④  
13 • 구성 방식: 수미 상관 · 효과: 주제를 강조하고 구성의 안정감을 준다.

### (2) - ② 진달래꽃 김소월

####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55쪽

- 01 (1) ○ (2) ○ (3) ○ (4) × (5) ○ (6) ○ (7) ○ (8) ×  
02 ⑤      03 ①      04 희생

01 (4) 이별의 상황에 대한 체념과 인고의 의지가 드러나는 작품으로,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자기주장을 통해 이별의 상황을 거부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8) 임에 대한 원망을 초극한 희생적 사랑이 나타나는 작품으로,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는 드러나지만 재회에 대한 근거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미래 지향적이라 할 수 없다.

02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읍소서.'에서 '사뿐히'와 '즈려밟고'의 모순으로 역설적 표현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것이 임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

03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으로,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 현신과 희생, 순종 등의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임이 화자에게 남긴 사랑의 징표라고 볼 수는 없다.

04 3연에서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놓인 꽃을 밟고 가라는 것은 화자의 자기희생적 사랑이라 할 수 있다.

#### OX로 팩트 체크

본문 056쪽

- 06 화자는 자기희생의 자세로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있을 뿐 임에 대한 분노의 태도는 보이고 있지 않다.  
07 화자는 이별의 상황에서 체념하였다가 떠나는 임을 축복하겠다는 자기희생의 자세로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09 화자는 '진달래꽃'을 자신의 분신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 자신의 감정을 '진달래꽃'에 이입하고 있지는 않다.  
15 역설이 아닌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1 '관조'는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봄.'이라는 뜻으로, 관찰자적 태도를 보일 때 쓰는 말이다.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여 임이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을 반어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므로, 관조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에서 반어적 표현을 통해 겉으로는 이별을 견뎌 낼 것이지만 속으로는 매우 슬퍼 할 것이라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다. ② 순우리말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1연과 4연에서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는 수미상관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⑤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과 같이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 ⑧은 봄 경치를 감상하며 느낀 즐거움과 안빈낙도를 노래한 작품이다.

**오답 해설** ① 임과 사별한 슬픔과 한 ② 임을 보내는 정한, 이별의 슬픔 ④ 이별의 정한 ⑤ 이별의 정한, 이별의 슬픔

3 '우리들'은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에 해당하므로 ②는 독자의 입장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효용론적 감상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작품의 배경에 주목하는 것은 내재적 감상에 해당한다. ③ 화자에 대한 감상은 작품의 내적 요소에 주목하는 것으로 내재적 감상에 해당한다. ④ 시대적 상황과 작품의 연관성에 초점을 둔 반영론적 감상에 해당한다. ⑤ 표현과 화자의 정서에 대한 감상은 작품의 내적 요소에 주목하는 것으로 내재적 감상에 해당한다.

4 이 글의 '진달래꽃'과 <보기>의 '꽃버들'은 임을 향한 마음을 형상화한 자연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 ③ 이 글과 <보기> 모두 임과 만날 것이라는 화자의 믿음을 확인할 수 없다. ④ 이 글과 <보기> 모두 이별의 상황을 수용하며 그로 인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별의 정한을 담은 한국 문학의 전통은 <보기>를 거쳐 이 글로 이어지고 있다.

5 ⑦은 화자의 분신으로, 임을 향한 사랑과 정성, 임에 대한 현신과 희생, 순종을 의미한다.

7 4연의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임에게 떠나지 말아 달라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8 ⑨ '사뿐히 즈려밟고'에는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④의 '외로운 황홀한 심시'에도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은 감정 이입, ②는 공감각적 표현·의인법, ③은 반어법, ⑤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10 2연의 '아름 마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는 부처에게 꽃을 뿌리며 공덕을 기림을 뜻하는 '산화공덕(散花功德)'과 관련지을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인생의 덧없음. ④ 같은 값이면 다충치 마라는 뜻으로, 같은 값이면 좋은 물건을 가짐을 이르는 말 ⑤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익을 이르는 말

**11** 이 글과 〈보기〉 모두 한국 문학의 전통인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이 글과 〈보기〉 모두 제목이 네 글자이지만, 그것을 한국 문학의 전통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이 글은 화자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지만, 〈보기〉는 ‘괴시란디 우려곰 쫓니노이다(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여 화자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이 글에서는 ‘진달래꽃’이라는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지는 않다. 〈보기〉에는 자연물이 활용되지 않았다. ⑤ 이 글과 〈보기〉 모두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한국 문학의 전통으로 볼 수는 없다.

**12** 〈보기〉에서는 ‘남포’, ‘대동강’과 같이 구체적 지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글에서도 ‘영변(寧邊)에 약산(藥山)’이라는 구체적 지명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임과의 이별을 슬퍼하고 있다. ② 이 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임과 이별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③ 이 글에서 화자는 이별의 상황에서 체념하였다가 떠나는 임을 축복하겠다는 자기희생의 자세로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④ 〈보기〉의 1구의 ‘풀빛이 푸른데’와 4구의 ‘푸른 물결’에 색채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슬픔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각 연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잊었노라’를 통해, 표면상으로는 먼 후일 임과 만나는 때에 “잊었노라.”라고 말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임을 잊을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과 〈보기〉 모두 반복을 통해 음율을 형성하고 있지만, 열가는 사용되지 않았다. ②, ⑥ 이 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 이 글과 〈보기〉 모두 와 관련 없는 설명이다.

**6** 이 글의 화자는 임과 이별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①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자연 친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②~⑤ 이 글과 마찬가지로 각 작품의 화자는 모두 임과 이별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7** (가)는 ‘진달래꽃’이라는 자연물을 이용하여 이별의 슬픔을, (나)는 ‘하늘, 바람, 별’ 등의 자연물을 이용하여 미래에 대한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8** (나)의 화자는 1~4행에서 ‘괴로워했다’던 과거의 경험을 드러낸다. 또 5~8행에서 ‘사랑해야지’, ‘걸어가야겠다’의 미래 상황에 대한 표현을 통해 자신의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 화자의 과거 행위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화자가 현재 이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② (나)의 화자는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하여 과거 자신의 상황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③ (가)에는 미래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지 않다. 반면 〈보기〉에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 걸어가야겠다.’라고 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에는 화자의 감정 전환이 드러나 있지 않다. 〈보기〉의 화자는 괴로워했던 과거에서 시작하여 미래에 대한 다짐을 드러내고 시상을 종결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감정을 전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 (가)와 〈보기〉 모두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가)에는 민요조의 3음보 율격이 드러나 있지만, 〈보기〉에는 ‘어져 내 일이야V그릴 줄을V모로던가’와 같이 4음보 율격이 드러나 있다. ③ 〈보기〉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 ④ (가)에서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이지만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소재는 아니다. 〈보기〉에도 감정의 이입은 활용되지 않았다. ⑤ (가)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

**10** (가)의 화자는 임이 떠난다는, 이별의 아픈 현실을 내면화시켜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고, (나)의 화자는 암담한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와 (나)에는 모두 화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화자의 내면적 심정을 토로한 것이고, (나)는 화자의 반성과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모두 설득적 어조와는 거리가 멀다. ③ (가)는 미래 시제, (나)는 과거 시제가 사용된 부분이 있으나 생동감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④ (나)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⑤ (가)와 (나) 모두 대상을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11** ‘영변(寧邊)에 약산(藥山)’에서 구체적 지명을 언급함으로써 향토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1연에서 화자는 임과 이별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아름’은 두 필을 둥글게 모아서 만든 둘레로 진달래꽃을 아름 따라 뿐이라는 데서 화자의 사랑의 크기를 헤아려 볼 수 있다. ④ 임이 떠나는 길에 놓인 꽃을 시뿐히 즐겨밟고 가라는 것은 화자의 희생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⑤ 4연은 1연을 반복·변용하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12** 화자는 3연에서 자신이 뿌려 놓은 꽃을 임이 밟고 가기를 바라

##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64~071쪽

1 ②	2 ④	3 ⑤	4 해설 참고	5 ④
6 ①	7 ①	8 ④	9 ①	10 ②
11 ②	12 ④	13 ③	14 ④	15 해설 참고

**1** 이 글은 이별의 슬픔을 3음보의 민요조 율격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임과 화자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지 않다. ③ 4연에서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있지만, 극복의 계기가 되는 결정적 사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영변(寧邊)에 약산(藥山)’이라는 구체적 지명이 제시되어 있지만 시대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는 관련이 없다. ⑤ 이별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사뿐히 즐겨밟고 가시옵소서.’를 통해 이별의 정한이 자기희생을 통한 숭고한 사랑으로 승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임이 화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영변(寧邊)에 약산(藥山)’이 향토적 분위기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화자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③ 화자는 임이 떠나기를 바라고 있지 않다. 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에는 화자의 슬픔이 반어적으로 나타나 있다.

**3** 화자의 분신인 진달래꽃을 매개로 임에 대한 사랑, 희생 등을 전달하고자 하면서도 반어적 표현(‘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을 통해 화자의 마음과 반대되게 표현하고 있다.

## 4 모범 답안

· 진	달	래	꽃	·	은	화	자	의	분	신	으	로	·	임
을	향	한	사	랑	과	정	성	,	임	에	대	한	현	
신	과	희	생	,	순	증	을	의	미	한	다			

**5** 이 글에서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를 통해 이별의 한과

며 허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의 화자도 당신에 대해 인내와 허생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별을 아름답게 수용함. ②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다짐과 삶의 괴로움 ③ 범의 이중성 ⑥ 생명에 대한 회의와 탐구 의지

13 <보기>의 2연에서 ‘그, 한’을 삭제함으로써 1~2행 / 3행이 각각 3음보로 끊어지는 율격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말업시’를 행갈이 함으로써 4연과 행 배열이 같아짐으로써 형태적 인정감을 얻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영변엔’을 ‘영변에’로 수정하여 지음 발침을 없앰으로써 뒤의 ‘악년’과 연결하여 낭독할 때 발음이 부드러워졌으므로 적절하다. ④ ‘걸음걸음’과 같이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이 살아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연의 반점을 제거함으로써 ‘죽어도▽아니 눈물▽흘리우리다.’와 같이 3음보의 운율을 형성하게 되어 통일성을 갖게 되었으므로 적절하다.

14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는 것은 <보기>에만 해당한다. (가)에는 후렴구가 나타나지 않는다.

## 15 도법 답안

⑦	에	서	화	자	는	임	을	위	해	자	신	을	희		
생	하	려	는	태	도	를	보	이	는	반	면,	⑧	에	서	
화	자	는	띠	나	는	임	에	게	불	행	이	일	어	나	도
록	빌	고	있	다.											

### (3) 허생전 \_박지원

####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75~087쪽

- 01 (1) ○ (2) ○ (3) ○ (4) ○ (5) × (6) ○ (7) ○  
02 ② 03 ⑤ 04 ⑩: 독서, ⑥: 양반  
05 (1) ○ (2) ○ (3) ○ (4) ○ (5) ○ (6) × 06 ③  
07 ③ 08 ① ⑩ (2) ⑥ 09 ㄱ, ㄴ, ㄹ  
10 (1) × (2) ○ (3) ○ (4) ○ (5) × (6) ○  
11 ④ 12 ⑤ 13 이상 사회(국가)  
14 (1) ○ (2) × (3) × (4) ○ (5) ○ (6) ○ 15 ④  
16 ⑤ 17 글을 아는 자들  
18 (1) ○ (2) × (3) × (4) ○ (5) ○ (6) ○ 19 ⑤  
20 ㄱ, ㄹ 21 ⑩: 한 가지, ⑪: 여러  
22 (1) ○ (2) ○ (3) ○ (4) × (5) ○ 23 ⑤  
24 ⑤ 25 ⑩: 위정자, ⑪: 인재 등용  
26 (1) ○ (2) ○ (3) ○ (4) × (5) ○ 27 ④  
28 ② 29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법이나 명분에 얹매이지 않았다.  
30 ⑩: 부국강병, ⑪: 노력

01 (5) 허생은 일을 하라는 치의 질책을 듣고 책 읽기를 중단한 채 집을 나가 버린다.

02 허생의 처는 현실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로, 밤낮으로 글만 읽고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허생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허생이 글만 읽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책한 것이다.

④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을 비난하고 있으므로 당시의 전형적 여성상으로 볼 수 있으며, 풍자의 대상이 아니라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⑤ 허생의 처는 현실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03 무능한 가장인 남편에게 도둑질이라도 하라는 아내의 잔소리는 결국 허생의 가출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는 윤리관과 유교적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조선 후기의 상황을 잘 보여 준다. 하지만 전쟁 이후의 피폐함 및 혼란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는 없다.

05 (6) 빈 섬은 허생이 이상 사회 건설을 위해 찾은 공간일 뿐, 허생 자신의 야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설정된 공간이 아니다.

06 허생은 만 냥의 돈으로 매점매석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허생은 후에 이 돈으로 나라의 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남은 오십만 냥을 바다에 버리며, 변 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다음 청빈한 생활을 유지한다. 이로 볼 때, 입신양명파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07 ⑦ 다음에 변 씨가 허생을 ‘말이 간단하고’라며 평가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로 볼 때, ⑦에는 ‘말이 간단하고’와 의미상 대립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⑦에는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함.’이라는 뜻의 ‘중연부연’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서로 변론을 주고받으며 옥신각신함. 또는 말이 오고 감. ② 둘째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 ④ 처자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닻하겠냐는 뜻으로, 남을 원망하거나 닻할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

09 ㄹ: 허생이 파일을 모두 사들이자 온 나라가 파일이 없어 제사를 지내거나 잔치를 열지 못한다. 이를 통해 당대의 양반들은 예법에 얹매여 있고 허례허식이 매우 심했음을 알 수 있다.

10 (1) 백성들이 도둑이 된 이유는 큰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마저 꾸려 나갈 수 없는 현실 때문이었다. (5) 허생이 군도들을 빈 섬으로 쓸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당시의 조정과 합의에 의한 것은 아니다.

11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조차 없어서 도적이 된 것으로, 사회 부조리 척결의 음직임과는 관련이 없다.

12 허생은 빈 섬으로 군도들을 데려가 양민에서 도둑으로 전락한 백성들을 교화시켜 풍요롭게 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분제를 없앴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군도들은 땅의 기운이 온전한 빈 섬에서 농사를 지어 삼 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 두었다. ②, ④ 허생은 양민에서 도둑으로 전락한 백성들을 빈 섬으로 데려가서 이들을 교화시키고 풍요롭게 살도록 하였다. ③ 허생은 일본의 속주인 장기지도로 가서 곡식을 팔아 온 백만 냥을 얻었다.

14 (2) 허생이 변 씨에게 빌린 돈은 만 냥인데 그 열 배인 십만 냥을 돌려주자 변 씨가 십분의 일로 이자를 쳐서 받겠다고 했을 뿐, 허생의 돈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3) 허생은 매점매석하여 큰돈을 벌었지만 자신은 장사치가 아니라며 상인 계층을 무시한다.

15 늙은 할미는 허생이 어떠한 사람이며, 그가 떠난 뒤 허생의 처가 오 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등을 변 씨에게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16** 허생은 당시 관념적인 허례허식에 얹매이고 무능한 사대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사농공상(土農工商)의 구분을 없애고 신분 계급을 철폐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④ 허생은 사농공상에 대한 뚜렷한 계급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재물에 구애받지 않는 사대부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②, ③ 허생은 비록 매점매석으로 큰돈을 벌었지만 자신은 정사치가 아니며, 돈은 도를 살찌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17** 허생은 글을 아는 자들이 현실과 유리된 채 세상을 논하여 양민과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섬에서 내보내려고 하였다.

**18** (2) 변 씨는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봄소 찾다가 도와주었다. (3) 허생은 큰돈으로 한 가지 물건을 독점하여 큰 이익을 취하였다.

**19** 허생은 자신이 큰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진 재주보다는 하늘의 뜻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허생이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④ 독점 자본의 폐단과 위험성을 드러내는 말이다.

**20** 변 씨는 허생이 돈을 벌 수 있었던 방법(1), 자신이 돈을 빌려줄 것임을 어떻게 알았는지(2) 등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지만, 허생이 매점매석으로 돈을 벌게 된 이유(3)와 과거에 책만 읽고 있었던 이유(4)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22** (4) 허생은 자신을 찾아온 이완에게 무슨 벼슬에 있는지 묻고, 이완이 대장이라고 말하자 오히려 기죽지 않고 이완을 ‘너’라고 부르는 대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3** 허생은 이완을 일부러 기다리게 만들고 그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며 그를 시험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단호한 태도로 직접 그에게 말한다.

**24**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와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은 ‘사면초가(四面楚歌)’이다.

**26** (4) 이완은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나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시하는 인물로서, 허생이 제시한 세 가지 계책을 모두 거절한다.

**27** 허생은 사대부들의 복장과 예법이 명분 없는 허식일 뿐임을 지적하면서 흰옷을 입는 것을 상인(喪人)이나 입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28** 허생이 제시한 개혁 방안은 허구적이라기보다는 당시 조선의 현실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급진적인 것이었다.

**29** 변오기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고, 무령왕은 적과 싸우기 위해 오랑캐 복장을 입어 예법이나 명분에 얹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 OX로 팩트 체크

본문 088쪽

**01** 허생은 영웅적 인물이 아니고, 영웅의 일대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으며, 미완의 결말로 맺고 있다.

**06** 조선은 만금으로 나라의 과일값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유통 구조가 취약하였다. 또한 허생이 장기도에 가서 해외 무역을 시도하기는 했으나 이를 활발한 해외 무역이라 볼 수는 없다.

**07** 집권층의 무능으로 도둑의 무리가 들끓었지만, 백성들을 수탈하고 억압하는 양반 계층들의 횡포가 심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09**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라는 허생의 말을 통해 작가가 사농공상의 계급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10** 허생과 이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결말을 맺는다.

**11**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는 친명배청의 허구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 있으나, 조선만의 전통을 수립해야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90~097쪽

1 ④      2 ⑤      3 ④      4 ③      5 ①

6 ⑥로 볼 때 허생의 처는 독서를 실생활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반면, ⑥로 볼 때 허생은 독서를 그 자체로 즐기는 것으로 생각한다. 7 ⑤

8 ⑤      9 ①      10 ③

**1** <보기>에서는 매점매석으로 인한 쌀값의 폭등을 막기 위한 당대 집권층의 생각과 다른 박지원의 논리가 드러난다. 이 글에서 허생이 취약한 경제 구조를 파악하거나 시사 삼책을 제시하는 것과, <보기>에서 박지원이 뒷일을 생각하여 쌀값 규제를 반대하는 것을 볼 때 그가 사회·경제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과 <보기>에서는 박지원이 도덕적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② 이 글을 통해 박지원이 허례허식에 대해 비판적임을 알 수 있지만, <보기>와는 상관없는 내용이다. ③ 이 글에서 허생이 매점매석으로 돈을 벌었지만 이를 통해 박지원이 매점매석을 옹호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보기>에서 정조가 쌀을 매점매석하여 폭리를 취하는 정시치를 벌주려 하자 박지원은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는데, 이는 별의 영향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려해서이지 매점매석을 옹호해서가 아니다. ⑤ 이 글과 <보기>에서는 박지원이 관리보다 임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2** <보기>의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란 성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로 볼 때, 허생의 처가 성현들의 주장처럼 살아가는 데 명분과 실리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③ (가)의 허생의 처의 말에서 알 수 있다. ④ <보기>의 ‘사람이 행복하게 살며, ~ 그것 말고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에서 알 수 있다.

**3** 허생은 국치를 씻기 위해 청나라와 교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작가가 집권자들이 명나라를 멀리하고 청나라에게 신하의 예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허생이 군도들을 이끌고 빙 섬에 들어가고 나서야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고 했다. 이는 나라에 군도들이 들끓었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집권층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나)에서 허생이 군도들에게 거느리고 오라고 한 여자 하나와 소 한 필은 가정을 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③ (다)와 (라)에서 허생이 이완을 꾸짖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나)에서 허생이 변 씨에게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 4 (나)에서 허생이 계층 간의 갈등 해소를 강조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허생이 화근을 없애야 한다며 글을 아는 자들을 섬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백만 냥은 우리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거늘,”이라는 허생의 말에서 알 수 있다. ④ 허생이 사람들에게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하루 리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해 하여라.”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허생이 배들을 모조리 불사르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렷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 5 허생은 빙 섬에서 자신이 꿈꿔 온 이상 세계를 시험해 보고자 하였다.

오답 해설 ②: 이상 사회 건설을 의미한다. ③: 명분만을 중시하는 사대부를 상징한다. ④: 숨어 있는 인재를 의미한다. ⑤: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는 중화사상의 관점에서 본 당시의 조선을 가리킨다.

- 7 [A]에서는 매점매석을 통해 허생이 돈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허생이 매점매석으로 돈을 벼는 방법과 그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경제 구조가 개인의 자본에도 흔들릴 만큼 취약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④ 이 글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으나 [A]와 <보기>에서는 확인 할 수 없다.

- 8 이완은 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부로, 기득권, 예법을 포기하면서 북벌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가 북벌의 허구성을 깨닫고 사회 변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허생은 처가 갈등을 빛으면서 글 읽기를 중단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 ③: 허생의 처가 사대부인 허생에게 도둑질이라도 못 하냐고 묻는 대서 알 수 있다. ④: 변 씨는 도량이 크고 대범한 인물로, 허생의 비범함을 알아본다. ⑤: 변 씨는 조선 후기에 급부상한 신흉 상인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 9 ‘부부유별(夫婦有別)’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도리는 서로 침범하지 않음에 있음을 이르는 말로, ⑦과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②: 허생의 ‘조그만 시합’은 농입을 통한 자급자족, 해외 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 군도들의 교화이다. ③: ‘화근 = 글을 아는 자’이므로 당대 지식인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알 수 있다. ④: 자신이 장사치처럼 여겨지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행동에서 허생의 계급 의식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⑤: 허생은 명분만 앞세우고 실천이 부족한 집권층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 10 ②는 ‘백성의 살림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좁고 지저분한 거리’는 ‘위항(委巷)’의 뜻이다.

1 ④ 2 ④ 3 ② 4 ⑤ 5 ①

6 장유서 7 ③ 8 ①

9 ④: 허생의 이인다면 면모를 부각한다. ⑤: 허생의 주장이 당시에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었음을 암시한다.

10 행색은 초라하지만, 떳떳한 마음을 지닌 비범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11 형식에 얹매이지 않고 실용적 태도를 가진 인물이다. 12 ④

13 ④ 14 ①

15 ④: 인재 등용의 불합리성과 집권층의 무능을 비판한다. ⑤: 친명배척 사상의 허구성과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 집권층을 비판한다. ⑥: 사대부들의 혀례허식과 북벌론의 대의명분에 대한 허구성을 비판한다. 16 해설 참고

- 1 빙 섬은 허생이 이상 사회 건설을 시도한 곳이지만 그것이 도교적 세계관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③ (가)에서 처가 비판하는 풍자의 대상이었던 허생이 (다)에서 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부들을 비판하는 풍자의 주체로 변모하고 있다.

- 2 허생은 해외 무역을 통해 벌고 남은 돈으로 백성을 구제했다. 매점매석으로 벌 돈으로 백성을 구제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라는 말은 허생의 계급적 한계를 보여 준다. ⑤ 허생은 이완에게 시사 삼책을 제시할 뿐 직접 현실에 뛰어들어 현실을 개혁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 3 (나)의 ‘허생이 도둑을 뚱뚱 쓸어 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를 통해 군도들로 인해 당시 사회가 혼란스러웠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허생이 장기도록 가서 해외 무역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 해외 무역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가)에서 허생의 처가 허생에게 장인바치 일이나 장사도 못 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 하나고 묻는 것으로 볼 때, 유교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양반인 허생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통해 모든 양반들의 삶이 평민들에 비해 윤택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허생이 돈을 번 후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기는 했지만, 그런 양반들이 종종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 4 [A]에서 허생은 재물에 뜻을 두지 않는 ‘안분지족(安分知足: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알.)’의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함을 이르는 말 ②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칠. ③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삶. ④ 삼십 일 동안 아홉 끼니밖에 먹지 못한다는 뜻으로, 몹시 가난함을 이르는 말

- 5 실제 지명을 활용하여 작품에 현실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것으로 이 글이 실화에 바탕을 두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②: 허생이 나라의 치안 문제를 해결한 대서 이인다면 면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아울러 나라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지배층의 무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백성들을 부(富)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 기반을 갖추게 하는 것이고, 문자를 만들고 의관(衣冠)을 제정하는 것은 문물을 정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허생이 백성의 삶의 질을 우선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허생은 글을 아는 자, 즉 지식인들이 현실과 유리된 채 이론과 관념으로만 세상을 논하여 양민과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⑤: 변 씨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허생의 성공 여부를 짐작하고 있다.

- 7 ㄱ: 허생의 처는 실생활을 중시하며 독서도 실생활의 수단으로 생각하므로 ‘이용후생(利用厚生: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

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함.)'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ㄷ: 폐포파립(敝袍破笠: 해어진 옷과 부서진 갓이란 뜻으로, 초라한 차림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허생이 돈을 꺼어 달라고 요구하는 데에도 아무 말 없이 만 낭을 내주는 것으로 볼 때, 변 씨는 대범하고 도량이 넓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ㅁ: (라)에서 허생은 재물에 뜻을 두지 않는 안분지족(安分知足: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안다.)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ㄴ: 독서를 입신양명(立身揚名: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칠.)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허생의 처이다. 허생은 독서는 그 자체로 즐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ㄹ: 허생은 변 씨에게 “내가 집이 가난해서 무얼 좀 해 보려고 하니, 만 낭(兩)을 꺼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성공을 호언장담(豪言壯談: 호기롭고 자신 있게 말함. 또는 그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8** ⑦은 허생이 이상 사회 건설을 시험하기 위한 공간으로, 현실 도피적 공간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② <보기>의 “내가 이제 율도국을 치고자 하니 그대들은 정성을 다하라.”라는 길동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다)의 ‘당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백곡이 잘 자라서, 한 해나 세 해만큼 걸려 짓지 않아도 한 줄기에 아홉 이삭이 달렸다.’와 <보기>의 ‘기름진 평야가 수천 리나 되며’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⑦은 허생이 늙은 사공을 통해 알게 되었으나 ⑩은 ‘길동이 매양 생각해 오던 바였다.’로 볼 때 길동이 이미 알고 있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⑤ ⑦은 허생이 이상 사회 건설을 시험하는 공간이고, ⑩은 길동이 왕이 된 후 이상을 실현하는 공간이다.

- 12** 허생은 국종의 자제들을 청나라에 파견하여 빙공과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서민들이 청나라에 가서 장사를 하며 청나라와 교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13** “천하에 대의(大義)를 와치려면 ~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에서 보편적 원리를 제시한 후에 청나라와의 문물 교류를 통한 현실 개혁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 “자들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일이오.”와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라며 직설적 말하기를 통해 상인 계층을 무시하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나): 보통 이(利)를 취하는 조그만 장사치들의 방식과 매점매석을 하여 큰돈을 번 자신의 방식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며, 모든 장사치들이 자신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나라를 병들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③ (다): 조성기와 유흥원은 평생을 학문 연구에만 전념했던 실존 인물이다. 와룡 선생도 중국 삼국 시대 촉한의 정치가이다. ⑤ (마):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이원에게 질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꾸짖기 위한 것이다.

- 14** ‘삼고초려(三顧草廬)’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참을성 있게 노력한다는 뜻으로, 중국 삼국 시대에 촉한의 유비가 난양(南陽)에 은거하고 있던 제갈량의 초록으로 세 번이나 찾아갔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오답 해설** ② 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으로, 상과 벌을 공정하고 엄중하게 하는 일을 이르는 말 ③ 사실에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하는 일. 공리공론을 떠나서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객관적 학문 태도를 이른 것으로, 중국 청나라 고증학의 학문 태도에서 볼 수 있다. 조선 시대 실학파의 학문에 큰 영향을 주었다. ④ 맹자가 어렸을 때 묘지 가까이 살았더니 장사 지내는 흉내를 내기에, 맹자 어머니가 집을 시전 근처로 옮겼더니 이번에는 물건 파는 흉내를 내므로, 다시 글방이 있는 곳으로 옮겨 공부를 시켰다는 것으로,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세 번이나 이사를 하였음을 이르는 말 ⑤ 깊이 잘 생각함.

## 16 모범답안

인	재	가	있	다	는	말	을	들	고	허	생	을	찾
아	갓	으	나	허	생	의	세	가	지	계	책	을	모
받	아	들	이	지	는	않	는	것	으	로	블	때,	그
는	실	리	보	다	는	명	분	을	증	시	하	며	보
인	태	도	를	지	녔	음	을	알	수	있	다.	.	적

# 9

## 문제를 해결하는 힘

### (1) 옷 한 벌로 세상 보기 \_이민정



####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115~119쪽

01 (1) ○ (2) ○ (3) ✗ (4) ○ (5) ○ (6) ○ 02 ④

03 ⑤ 04 ⑦: 가격, ⑧: 속도

05 (1) ○ (2) ○ (3) ✗ (4) ○ (5) ○ (6) ○ 06 ⑤

07 ①

08 (1) 최신 유행을 반영한 옷을 썬 가격에 살 수 있어 열렬하게 호응한다.

(2) 디자인 도용의 문제, 환경 오염의 문제

09 (1) ✗ (2) ○ (3) ○ (4) ○ (5) ○ (6) ○ (7) ○ 10 ③

11 ⑥

12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를 실천해야 한다.

01 (3) 1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나라 옷 구매 횟수와 구매량이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2 이 글은 논설문인데, 논설문은 독자를 설득할 목적으로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쓴 글이다. 글쓴이의 경험을 통한 성찰을 제시하여 감동을 유도하는 글은 논설문이 아니라 문학 작품의 한 갈래인 수필의 특징이다.

03 2의 마지막 부분에 따르면 많은 의류 업체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이유는 노동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05 (3) 6에서 원작 디자이너는 소송 과정이 길고 복잡하며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디자인 도용에 대한 소송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6 7에 따르면 땅에 묻어도 썩지 않고 태우면 유해 물질을 발생시키는 것은 합성 섭유이다.

**오답 해설** ③ 7의 앞부분에 한 해에 생산되는 의류의 양이 약 800억 점이고 그 중 3/4인 600억 점이 소각되거나 매립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생산된 옷의 75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07 디자인 도용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신상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하고, 디자인 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저별로 입게 될 손해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디자이너가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이유는 역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디자인 도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09 (1) 9에서 많은 의류 업체들이 제품 제작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 임금이 낮은 개발 도상국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든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0 10에서 짠 가격으로 경쟁하는 옷, 더 빠르게 유행을 따라가는 옷을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에서,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

을 인상하거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1 13을 보면, 글쓴이는 옷의 가격이 비싸더라도 공정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옷을 구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OX로 팩트 체크

본문 120쪽

02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다르지 않게 옷 구매 횟수와 구매량이 증가하였다.

05 의류 산업은 대표적인 노동 집약 산업이다.

06 의류 산업은 노동 집약 산업이므로 노동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제품 가격을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09 의류 업체는 디자인 도용으로 고발당하더라도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11 한 해에 생산되는 의류의 4분의 3은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14 개발 도상국의 노동자는 늦은 시간까지 노동을 강요당하고 쉬는 시간도 뺏기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는다.

####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122~127쪽

1 ④ 2 ② 3 ②

4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유행을 따르기 위해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린다. 5 ④ 6 ② 7 ③

8 한 해에 생산·폐기되는 의류와 직물의 양을 익숙한 대상과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9 ② 10 ③

11 글쓴이는 빠른 옷 소비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이 의류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12 노동력 착취

1 이 글과 같이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는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이 글의 갈래인 논설문의 특징이다.

2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옷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의류 업체 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과 속도 경쟁을 들고 있다. ③ 1문단의 '소비자가 이렇게 많은 옷을 쉽게 소비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에서 질문을 통해 옷 소비 증가 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④ 'A 기업이 청바지 한 벌을 5만 원에 시장에 내놓았는데, B 기업이 같은 품질의 청바지를 4만 5천 원에 판다면 소비자는 A 기업보다는 B 기업의 청바지를 살 것이다.'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⑤ '미국에서 발간한 한 잡지의 보도에 따르면, 2010년대에 들어 미국인이 구입한 옷은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 다섯 배나 더 많다고 한다.'에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3 마지막 문단의 ‘이러한 변화가 과연 반가워만 할 일인가라는 의문이 든다.’로 볼 때, 빼른 옷 생산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2문단에 따르면 의류 산업은 대표적인 노동 집약 산업이므로, 전체 생산 비용에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③ 1문단에 따르면 2010년대에 들어 미국인이 구입한 옷이 1980년대에 비해 다섯 배나 더 많은 것처럼 우리나라로 옷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최신 유행을 반영한 제품을 시장에 빨리 내놓을수록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의류업체들이 생산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제품 가격을 낮추려면 노동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많은 의류업체가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5 한 해에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의류는 약 800억 점이고, 그중 600억 점이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오답 해설 ① (가): ‘그런데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가 과연 반가워만 할 일인가라는 의문이 든다.’에서 알 수 있다. ② (나): 옷을 쉽게 소비하면 옷을 빨리 생산해야 하므로 옷을 디자인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남의 디자인을 도용한다. ③ (다): 디자인 도용이 계속되면 디자이너는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④ (마): 면화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살충제는 토양에 스며들고 강으로 흘러들어 가 환경을 오염시킨다.

6 (나)에 따르면 옷을 빠르게 생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디자인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며(ㄱ), 디자인 도용으로 인한 이익이 저별로 인한 손해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ㄹ).

오답 해설 ㄴ: 디자인 도용은 저렴한 가격이나 많은 양의 옷 생산보다는 생산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이다. ㄷ: 디자인 도용에 대한 저작 재산권 소송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작 디자이너가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7 (라)에는 옷을 버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이, (마)에는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것이 의류 업체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과도한 옷 소비로 인해 옷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며 결국 버려지는 옷도 많아지는 것이다. ③은 옷의 생산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옷 소비로 인해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9 기업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2문단에 따르면 싼 옷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③ 글쓴이는 옷을 불필요하게 소비하지 않는 것을 첫 번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이 글의 제일 앞에서 ‘자연 뜻지 않게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라고 했으므로, 이 글의 앞에는 옷 소비로 인해 자연이 입는 피해가 제시되었을 것이다. ⑤ 의류업체가 개발 도상국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이유는, 시간당 임금이 낮은 개발 도상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제품 제작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0 가격이 저렴한 옷은 싼 가격을 매기기 위해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답 해설 ② 3문단에서 글쓴이는 옷을 필수품으로 인식해야 하며 일회용품처럼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128~133쪽

1 ①

2 ④

3 ⑤

4 ③

5 ④

6 ① 7 ⑥

8 시간당 임금이 낮은 개발 도상국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노동 비용을 줄인다. 9 ⑥ 10 ① 11 ①

12 디자인 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저별로 입게 될 손해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13 환경 오염

14 의류 산업은 노동 집약 산업이므로, 제품 제작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낮은 개발 도상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15 해설 참고 16 해설 참고 17 해설 참고

1 적극적으로 글을 읽기 위해서는 글쓴이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2 이 글은 논설문으로, 옷 소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아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는 있으나 특별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는 않다. ⑤ 이 글은 논설문으로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나는 글이다.

3 옷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옷이 공정한 과정을 거쳐 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옷이 비싸다는 사실이 반드시 공정한 과정을 거쳐 생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조건 비싼 옷을 사야겠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와 (다)에서 옷의 소비와 생산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②, ③ (다)에서는 면화를 경작할 때 사용하는 살충제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해, (라)에서는 가격이 낮은 옷을 만들기 위한 노동력 착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④ 디자인을 도용하는 것이 옷을 빠르게 생산하기 위한 이유 중 하나일 수는 있으나,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4 이 글의 주제는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의 필요성’이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상황에 해당한다. ②, ⑤ 이 글에 언급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글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는 될 수 없다. ④ (가)~(마)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5 [A]에서는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를 실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해결 방안이 번거로울 수 있다는 단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계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후에 생산 과정을 고려하여 옷을 소비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6 가격, 치수, 재질은 글쓴이가 말하는 옷의 정보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③ 노동 착취를 통해 옷의 가격을 낮추는 것은 불공정하므로 이러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7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가격이 싸진 옷은 그 가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격이 높더라도 공정한 방법으로 만든 옷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③ 가격이 싼 옷은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성이 높지만 싼 옷이라고 하여 모두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9 기업이 아무리 노동자와 환경을 고려한다고 해도 소비자는 그

외의 생산 과정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답 해설 ① ②에서 ○○○가 친환경 제품이라도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므로 신제품을 쉽게 사고 버리기보다 기존 제품을 오래오래 입으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가 제품 생산 비용 외 추가 자금을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지급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가 노동자와 지구 환경 등을 고려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10 과도한 옷 소비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②은 기업, 디자이너, 노동자, 소비자, 환경 모두를 고려한 개념이다.

11 ①는 ‘남의 물건이나 명의를 몰래 씀.’의 뜻이다.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은 ‘모방(模倣)’의 뜻이다.

## 15 도법 단답

[ 가 ] 는 많 은 양 의 옷 이 빠 트 게 생
산 되 고 엄 청 난 양 이 버 려 지 고 있 음 을
통 계 자 료 를 활 용 하 여 말 하 고 있 는 데 ,
자 료 의 출 처 를 밝 힘 으로 써 신 뢰 성 을 준
다 . 또 한 옷 이 생 산 되 고 버 려 지 는 양
을 우 리 나 라 국 토 의 넓 이 와 관 련 지 어
표 현 힘 으로 써 독 자 가 쉽 게 이 해 할 수
있 도 륙 도 움 을 준 다 .

## 16 도법 단답

웃 한 별 예 는 옷 디 자 인 과 관 련 된
지 적 재 산 권 , 노 동 자 의 권 리 , 환 경
오 염 과 같 은 사 회 적 인 문 제 가 모 두 관
련 되 어 있 다 . 따 라 서 ‘웃 한 별 로
세 상 보 기 ’ 는 옷 한 별 을 통 해 옷 을
소 비 하 는 사 랍 . 만 드 는 사 랍 , 자 연 ,
즉 세 상 을 읽 을 수 있 다 는 의 미 이 다 .

## 17 도법 단답

과 도 한 옷 소 비 가 일 으 키 는 문 제 를
인 식 하 고 , 정 당 한 옷 을 소 비 하 여 의 류
산 업 과 이 에 종 사 하 는 사 랍 들 , 지 구
환 경 까 지 공 생 할 수 있 도 록 하 는 것 을
의 미 한 다 .

## (2)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137~143쪽

- 01 (1) ○ (2) ○ (3) ✕ (4) ○ (5) ○ (6) ○ (7) ○ 02 ⑤  
03 ④ 04 ② → ⑤ → ⑦ → ⑧ → ②  
05 (1) ○ (2) ○ (3) ○ (4) ✕ (5) ○ (6) ○ 06 ③  
07 ② 08 신뢰성  
09 (1) ○ (2) ○ (3) ○ (4) ○ (5) ○ (6) ✕ (7) ○  
10 ④ 11 ④ 12 ④  
13 (1) ○ (2) ○ (3) ✕ (4) ○ (5) ○ (6) ○  
14 ④ 15 ① 16 • 찬성 측: ④, ⑤ • 반대 측: ⑦, ⑧

01 (3)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가치 논제가 아니라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02 반대 신문식 토론의 맨 처음 발언은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론이다. 이 글에서도 찬성 1이 먼저 입론을 제시하고 있다.

03 토론에서 토론자의 주장에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찬성 측과 반대 측 토론자들뿐이다.

오답 해설 ①, ②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③ “양측 토론자는 토론 규칙을 잘 지키며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④ “그럼 먼저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론을 듣겠습니다.”, “반대 측 제2 토론자,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에서 알 수 있다.

04 ④: 휴대 전화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 휴대 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②: 학생들은 독립된 존재이므로 ~ 이를 사용할 자유가 있습니다. → ⑦: 유독 학교에서만 ~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⑤: 강제적인 규제는 ~ 학생들의 의지마저 꺾고 있습니다. → ③: 교내에서 휴대 전화를 ~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 (4) 찬성 1은 이미 학생들이 휴대 전화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한다고 해서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06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하여 휴대 전화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찬성 측이 아니라 반대 측이다.

오답 해설 ④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부당한가의 문제, 그리고 학생들이 휴대 전화 사용을 자율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필수 쟁점에 해당한다. ⑤ 반대 1은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에 관한 한국 정보화 진흥원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여 주장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07 ⑦은 반대 신문에 해당한다. 반대 신문은 상대측 주장의 하점을 지적하여 질문하는 것이지만, 상대측의 의견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09 (6) 찬성 2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언에서 구체적 사례를 통해 반대 1의 반대 신문을 반박하고 있다.

10 이 부분의 필수 쟁점은 휴대 전화를 유용한 수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11 사회자가 토론 순서를 지키지 않은 반대 1을 제지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⑤ 반대 1은 다양한 수업에서 휴대 전화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찬성 2의 발언 중에 끼어들어 찬성 2의 발언을 방해하고 있다. ②, ③ 반대 1은 “찬성 측 토론자는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닙니까? ~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라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찬성 2를 무시하며 말하고 있다.

12 반대 2는 ‘한국 정보화 진흥원’이 2015년에 발표한 조사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⑥ 반대 2가 아니라 찬성 2의 말하기 전략이다.

13 (3) 학생이기 이전에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인격체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개인 물품 사용을 규제당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발언한 것은 찬성 1이다.

14 반대 측의 발언에서 청소년들이 휴대 전화보다 직접적인 소통을 원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5 사회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며 평가를 유도하고 있다.

## OX로 팩트 체크

본문 144쪽

05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07 찬성 측은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의 강제적인 규제는 자율적으로 절제하려는 학생들의 의지를 꺾는다고 주장한다.

09 등·하굣길에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률은 언급하지 않았다.

13 사회자는 논제를 제시하거나 토론자에게 형식과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하는 등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14 반대 1은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등의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15 ‘휴대 전화를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찬성 측의 주장 중 하나로, 필수 쟁점이 아니다. 이 토론의 세 번째 필수 쟁점은 ‘휴대 전화를 유용한 수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이다.

6 해결 방안의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제시된 방안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며 실행 가능한지가 필수 쟁점이 된다.

오답 해설 ④ 토론은 논제에 대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의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는 말하기이다.

7 찬성 1은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이 심각하며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반대 측의 입장에 동의하지만, 학생 스스로 휴대 전화 사용을 절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사회자는 처음에 반론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으며, 마지막에 토론 내용을 정리하며 평가를 유도하고 있다. ② 반대 1은 학교가 친구, 선생님과 관계를 형성하며 더불어 생활하는 곳이고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④ 반대 2는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들고 있지 않다. ⑥ 찬성 2가 휴대 전화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통계 수치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8 ④는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반대 측 주장에 대한 찬성 측의 반론이다.

9 토론에서 양측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이 다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론을 제시할 때 이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한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⑤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가 주장과의 연관성이 희박함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한 전략이다.

10 토론을 평가할 때는 발언 시간을 준수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오답 해설 ② 토론 전체와 관련된 평가 기준이다. ③ 반론과 관련된 평가 기준이다. ④, ⑤ 입론과 관련된 평가 기준이다.

12 양측은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가 믿을 만한지, 타당한지, 공정한지 등을 살펴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④ 적절한 근거를 제시할 때는 책, 전문가의 의견, 설문 조사 결과,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13 폐회로 텔레비전의 절약 효과는 논제나 필수 쟁점과 관련이 없다. 예상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는, 학교 안에 폐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함으로써 범죄율을 줄인 다른 나라의 운용 사례, 폐회로 텔레비전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 등을 제시하여 폐회로 텔레비전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좋다.

##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146~151쪽

1 ① 2 ② 3 ③ 4 정책 논제

5 ⑦ 교내 휴대 전화 사용 여부는 학생의 자유이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⑨ 바쁜 생활 태도를 익히기 위해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

6 ③ 7 ③ 8 ④ 9 ③ 10 ①

11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이 심각하며 이를 예방해야 한다.

12 ⑤ 13 ⑤

14 토론자가 토론 규칙을 어기거나 토론의 방향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때 이를 제지하여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 이 글의 논제는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로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사실의 진위 여부를 논하는 논제는 ‘독도는 우리 땅이다.’와 같은 사실 논제이다.

2 ⑦은 2007년부터 교내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했지만, 2014년에 교내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면 금지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며 교내 휴대 전화 소지에 관한 새로운 입장장을 밝혔다.

3 ⑨에서 사회자는 토론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4 정책 논제는 사실과 가치 판단에 기초해 행동 여부를 추구하는 문제로, 정책 도입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한다.

##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152~159쪽

1 ② 2 ③ 3 ① 4 ④ 5 ②

6 한국 정보화 진흥원이 2015년에 발표한 조사 7 해설 참고

8 ⑤ 9 ④ 10 ④ 11 반대 신문식 토론

12 ④ 13 ③ 14 필수 쟁점 15 해설 참고 16 해설 참고

1 ‘휴대 전화를 수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필수 쟁점을 바탕으로, 휴대 전화의 여러 기능은 다양한 수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찬성 측과, 휴대 전화의 교육적 효과는 과장된 면이 있다는 반대 측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 그: 찬성 2의 “휴대 전화의 정보 검색 기능, 쌍방향 소통 기능, 동영상 및 사진 촬영 기능 등을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그: 찬성 2의 “실제로 휴대 전화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 현장에서 휴대 전화를 활용하는 방법을 자신의 블로그에 소개한 선생님도 계십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그: 찬성 2의 “오늘날에 휴대 전화와 같은 매체를 사용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 그: 반대 2의 “휴대 전화를 사용할 때는 한 가지 자극에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자극을 찾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력이 저하됩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그: 반대 2의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정보를 검색하여 쉽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3 반대 1은 찬성 2의 발언을 방해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찬성 2를 무시했을 뿐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찬성 측 토론자는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닙니까?”라며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다. ③, ④ 상대방의 발언 중에 끼어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휴대 전화를 수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기보다는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라며 자신의 의견을 말하여 찬성 2의 발언을 방해하고 있다. ⑤ “휴대 전화 사용이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성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찬성 2의 의견에 반박하고 있다.

4 사회자는 찬성 2의 발언 중에 끼어든 반대 1을 제지하며 토론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5 <보기>는 휴대 전화 사용이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성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 7 모범 답안

다	양	한	디	지	털	기	기	를	활	용	한	수	업	이	
가	능	해	졌	다	.	또	한	학	생	들	이	주	체	가	되
어	참	여	하	는		형	태	의	수	업	이	늘	고	있	는
데	,	이	러	한		수	업	에	서	휴	대	전	화	를	유
용	하	게				활	용	할	수	있	다				

8 찬성 측은 휴대 전화 사용을 통해 바른 생활 태도를 익히는 것을 근거로 들지는 않았다. 반대 측이 학교는 바른 생활 태도를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곳이므로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 반대 1의 입론에서 수업 중 휴대 전화 사용에 대한 부작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논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으로 등·하굣길에 많은 학생들이 휴대 전화를 사용하며 길을 걷는다는 것과,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도 대화는 하지 않고 각자 휴대 전화만 들여다보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②, ⑤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사용하여 찬성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③ 학교에서 바른 생활 태도를 익히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10 ⑨은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통계 수치이다.

12 ④는 선악, 시비 등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가치 논제이다.

13 토론의 사회자는 논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장을 취해야 한다.

## 15 모범 답안

찬	성	측	온	강	제	로	휴	대	전	화	사	용	을
규	제	하	면	학	생	들	의	반	발	을	불	려	일
자	을	적	인	절	제	의	지	를	꺾	게	된	다	고
장	하	고	있	다	.	이	에	대	해	반	대	족	주
학	생	들	이	휴	대	전	화	를	과	도	하	게	사
며	이	를	스	스	로	조	절	하	기	어	렵	다	고
장	하	고	있	다	.								

## 16 모범 답안

찬	성	측	온	반	대	측	이	청	소	년	이	휴
대	전	화	를	주	로	유	획	적	인	용	도	사
하	고	있	다	는	주	장	의	근	거	도	제	사
않	은	부	분	을	지	적	하	고	있	으	시	용
대	해	반	대	측	은	한	국	정	보	화	진	통
라	는	권	위	있	는	기	관	의	조	사	결	과
근	거	로	제	시	하	여	청	소	년	이	휴	대
주	로	유	획	적	용	도	로	사	용	한	답	전
고	있	다	.									화

- 01 ④ 02 ⑤ 03 ④ 04 ④ 05 ②  
 06 밤 07 주추리 삼대 08 ② 09 ② 10 ①  
 11 해설 참고 12 ③ 13 ③ 14 ⑤  
 15 관직에 오르지 못한 채 살다가 죽었음을 의미한다.

01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임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지만, ④는 늙음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⑥ 임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02 (가)는 평시조로, 유교적 이념, 애정 세계 등을 다룬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특성을 띠는 것은 (나)와 같은 사설시조이다.

오답 해설 ③ 종장의 첫 음보는 ‘어론 님’으로 3음절이다.

03 (가)의 화자는 임이 없는 동짓달 기나긴 밤의 허리를 베어 내고 싶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임이 없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04 (가)에서는 임이 부재한 시간과 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각각 언급하고 있을 뿐, 시간적인 흐름은 드러나지 않는다. <보기> 역시 화자가 이승과 저승을 언급하고 있을 뿐, 공간적인 이동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보기>는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에서는 임과 함께할 ‘어론 님 오신 날 밤’을, <보기>에서는 누이와 ‘미타칠(彌陀擦)’에서 만날 시간을 언급하고 있다. ③ (가)는 ‘서리서리’, ‘구부구부’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 ⑤ (가)는 ‘밤’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고, <보기>는 누이의 이름 죽음을 이를 바람에 떨어지는 잎에 비유하고 있다.

05 화자가 작년에 잡아 벗긴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고는 있지만, 농사를 짓느라 힘겨워하고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임을 애태해 기다리고 있다. ③, ④ 화자는 종장에서 임을 보기 위해 다급히 달려 나가는데 이러한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화자는 종장에서 자신이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달려 나간 것을 남들이 보지 않았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06 (가)는 ‘낙월’이 대상을 비춘다는 속성을 통해 임을 따르겠다는 주제를 강화하고 있고, (나)는 ‘진달래꽃’을 통해 임을 위한 사랑과 헌신이라는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 모두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가)는 현실 자각은 있으나 이를 통한 미래에 대한 기대는 찾을 수 없으며, (나)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현실 자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가)에는 부정적 상황은 있으나 이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부정적 상황을 가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받아들인다고 보기 힘들다. ⑤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07 ‘반벽청등’이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는 아니며, 화자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객관적 상관물인 ‘빈 배’를 통해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③ ‘계상’, 즉 닭소리라는 청각적 심상 때문에 화자가 꿈에서 깨어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④ 떠나는 임을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겠다는 반여적 표현을 통해 임이 떠나지 않기를 염원하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을 상징하는 소재로, 이를 통해 화자는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10 <보기>의 시구는 (나)의 기본적인 율격에서 벗어나 있어 시 전체의 운율을 깨뜨리고 있다. 즉 (나)가 7·5조를 기초로 한 3음보의 율격과, 비슷한 시구의 반복에 의해 운율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보기>의 시어를 바꾸고 글자 수를 조절하여 운율상의 효과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1 모범 답안

죽	어	서	.	낙	월	,	이	되	겠	다	는	것	으	로
볼	때,	여	인	2	는	임	을	사	랑	하	지	만		
소	극	적	인	태	도	를	보	이	고	있	는	반	면,	
여	인	1	온	여	인	2	에	게	‘	구	준	비	’	가
되	라	고	조	연	하	는	것	으	로	불	때,	적	극	
적	인		애	정	관	을	지	니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12 허생이 변 씨에게 큰돈을 갚은 후 몇 해를 지나는 동안 그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둘 사이의 정분이 날로 두터워 갔다고 하였을 뿐 허생이 변 씨의 됨됨이에 감복하여 그와 친구가 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늙은 할미’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왜 재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오?”라고 한 허생의 말에서 알 수 있다. ④ ‘내 스스로 나의 재주가 죽히 백만 낭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허생의 말에서 알 수 있다. ⑤ 허생의 마지막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허생이 지적한 두 가지 문제점 중에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대책이 들어가야 하므로, 무역 자유화와 물화의 유통망 확충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14 허생은 ‘조성기’와 ‘유령원’과 같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당시 불합리한 인재 등용 제도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01 ⑥ 02 ④ 03 ③ 04 ③ 05 ⑤  
 06 ⑥

07 디자인이 도용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환경이 오염되며, 개발 도상국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침취된다. 08 ⑦: 이익, ⑧: 손해 09 ③

- 10 ③ 11 ③ 12 ①

13 논제를 제시하고 토론의 시작을 알린다.

- 14 ⑦: 입론, ⑧: 반대 신문, ⑨: 반론 15 해설 참고

01 이 글은 논설문이므로 글쓴이의 경험이 사실적이고 진솔하게 드러났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

02 ㄴ: (가)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ㄹ: (마)~(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ㄱ: (가)의 ‘미국에서 밟간한 ~, 우리나라로 이와 다르지 않게 ~’를 통해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대조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ㄷ: (나)에서 의류 산업이 노동 집약 산업이라고는 했지만, 산업의 종류를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03 (다)에 따르면 새로운 유형을 반영한 옷을 만들어 가게에 전시하기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경쟁에서 유리하다.

오답 해설 ① (가)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마)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바)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사)를 통해 알 수 있다.

#### 04 제품에 대한 흥보 시기는 이 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② 의류 업체 간 속도 경쟁과 관련된 내용이다. ④ 유행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쉽게 옷을 사게 되는 것이다. ⑤ 의류 업체 간 가격 경쟁과 관련된 내용이다.

#### 05 ⑦은 ‘어떤 추상적인 힘이나 세력에 의하여 물리거나 떠밀리다.’라는 뜻이다.

오답 해설 ①~④ ‘어떤 자리에서 물리거나 쫓겨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 06 ⑧는 ‘불에 태워 없애 버림.’의 뜻을 지닌다. ‘우뚝한 땅이나 하천, 바다 등을 들이나 흙 따위로 채움.’은 ‘매립’의 뜻이다.

#### 09 오답 해설 ㄴ: 입론을 할 때 친성 측이 현재 상태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ㄹ: 입론에서 반대 측이 친성 측의 주장과 근거를 반박하며 논증한다.

#### 10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이 심각하며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은 친성 측과 반대 측 모두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오답 해설 ① 반대 측만 주장하는 내용이다. ②, ④ 친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다. ⑤ 친성 측만 주장하는 내용이다.

#### 11 (다)에서는 한국 정보화 진흥원에서 발표한 조사 내용을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함으로써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 12 (나)는 친성 측의 입론이다. 필수 쟁점은 논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짚어야 하는 세부 주장이므로 마지막에 도출해서는 안 된다.

오답 해설 ② 입론 과정에서 평가해야 할 요소에 해당한다. ③, ④ 반대 신문 과정에서 평가해야 할 요소에 해당한다. ⑤ 반론 과정에서 평가해야 할 요소에 해당한다.

#### 15 도법 단안

사	실	논	제	는	사	실	의	진	위	여	부	를	논
하	는	문	제	이	고,	가	치	논	제	는	선	악,	
시	비	등	가	치	판	단	이	개	입	되	는	문	제
다.	.	또	한	정	책	논	제	는	사	실	과	가	치
판	단	에	기	초	해	행	동	변	화	를	추	구	하
문	제	이	다.	이	토	론	의	논	제	는	정	책	논
제	에	해	당	한	다.								

#### 8~9단원 통합 최종 점검 모의고사

본문 170~181쪽

01 ① 02 ① 03 ② 04 ② 05 ④

06 ⑤ 07 ③ 08 ③ 09 ② 10 ③

11 진달래꽃 12 ② 13 ⑤ 14 ② 15 ③

16 ② 17 ⑤

18 1. 허생의 행적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한다. 2. 허생이 사라짐으로써 이전에 그가 보여 줬던 이인운 행동이 더 부각된다. 3. 허생의 가치관이 현실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4.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마무리함으로써 여운을 느끼게 한다. 19 ③ 20 ①

21 노동 비용을 줄여 제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이다.

22 ⑤ 23 ④ 24 ④ 25 해설 참고

#### 01 (가)의 화자는 ‘어론 님’을 기다리고 있고 (나)의 화자 역시 ‘님’이 온다고 하여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임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두 작품 모두에 대상이 부재하는 상황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⑤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 02 (가)에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② ‘서리서리’, ‘구뷔구뷔’ 등 의태어를 사용하여 순우리말의 묘미를 살리고 있다. ③ 중장과 종장이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과 함께할 시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관념적인 대상인 ‘밥’을 구체적 사물인 것처럼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주관적 변용이라고 한다. ⑤ 임이 부재해서 길고 외로운 ‘동지시 톲 기나긴 밤’과 임과 함께하는 ‘어론님 오신 날 밤’이 의미상 대조를 이루고 있다.

#### 03 ‘어론 님’이 돌아올 수 없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⑦의 ‘밤’은 화자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부정적 시간이고, ⑩의 ‘밤’은 화자가 임과 함께하는 긍정적 시간이다. ③ ⑩에는 ⑨에 대응하는 내용이 들어야 하므로, ‘구뷔구뷔 피리리’가 적절하다. ④ ⑨와 ⑩에서는 ‘밤’을 이불 아래 넣었다가 편다고 했으므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사용되었다. ⑤ 화자는 임과 함께하는 시간을 오래 지속하고 싶어서 동짓날의 밤을 잘라 두었다가 ‘어론 님’이 오시는 밤에 불인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 04 ‘보션’, ‘진’이라는 소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는 맞지만 임의 소중함을 상징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음성 상장어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가리킨다. 의성어나 의태어는 생동감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는데 이를 나열함으로써 그 효과가 더욱 커지고 있다. ③ 화자는 주주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급한 마음에 허둥거리며 달려간다. 주주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한 모습도 해학적이며 주주리 삼대에게 허둥거리며 달려가는 모습을 과장적으로 표현한 것도 해학적이라 볼 수 있다. ⑤ 질퍽한 곳과 마른 곳을 가리지 않고 뛰어가서 여성의 남성에게 먼저 가슴 속에 품은 애정 표현을 건네려고 하는 모습은 〈보기〉 내용 중 ‘애정을 서슴없이 표현하려는 대담성’과 연결이 되기에 화자의 대담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05 ‘두엄’은 ‘두터비’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성찰을 환기하는 소재라고 할 수 없다. ‘주추리 삼대’는 화자가 임이라고 여기게 했다는 점에서 착각을 유발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③ ⑨ ‘가슴이 금족하여’는 관찰자 입장에 있는 화자가 ‘두터비’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적 대상인 ‘두터비’의 심리라고 할 수 있다. ⑩ ‘저야 님이로다’는 화자가 ‘주추리 삼대’를 보고 임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적 화자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⑤ ⑨은 ‘내가 날렵했기에 그나마 피멍은 들지 않았다.’라는 자화자찬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두터비’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⑨는 ‘그나마 밤이라 다행이다.’라는 화자의 안도감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자조적인 의미를 내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06** (나)의 ‘춘풍 니불’은 따스한 이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가 임이 돌아오는 날에 사용하려는 것이다. (나)에서 화자가 임을 위해 새롭게 이불을 만드는 상황은 아니며, 화자가 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맞지만, 임과의 재회에 대해 굳은 믿음을 가졌다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07** ⑤의 ‘부람’은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부정적 의미를 띠고 있는 소재이므로 이는 화자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상황이고, ⑥의 ‘바람’은 누이의 죽음을 가져온 원인으로 작용한 소재로서 화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③와 ⑥ 모두 인간의 강인함을 인식하게 하거나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 ⑤ ⑥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준다고 볼 수 있으나 ⑥는 상황에 대한 만족감이 아니라 좌절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08** (다)의 화자는 슬프지만 겉으로 슬픔을 나타내지 않는 ‘애이불비(哀而不悲)’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화자의 과거 행위나 과거의 상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화자의 감정이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다.

**09** (다)는 임이 떠나면 매우 슬플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반어적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임이 떠나도 곧 돌아오며 재회에 대해 기원하기는 하지만 임과 재회를 기약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다)의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는 임의 뜻을 따르겠다는 순종과 체념의 자세를 나타낸 표현이다. 〈보기〉도 ‘잡스와 두어리마는 는 / 선후면 아니 올세라’에서 체념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다)의 2연에서 진달래꽃을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라고 한 것은 임의 앞길을 축복하는 것에 해당한다. 〈보기〉는 1연에서 원망에 찬 애원을 하고 있으며, 2연에서 애원(원망)이 고조되고 있다. ④ (다)의 4연에서 인고의 의지를, 〈보기〉의 4연에서 임과의 재회에 대한 기원과 소망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다)의 화자는 2연에서 떠나는 임에게 꽃을 뿌려 주고 있으며, 〈보기〉의 화자는 4연에서 아쉽고 서러운 마음으로 임을 보내고 있다.

**10** ⑦에는 한밤중에 득수공방하는 화자의 처지가 나타나 있고, ⑧에는 밤(시간)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발상 및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조건에 맞춰 시행(詩行)을 창작한 것은 ③이다.

**12**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양 즉 혼가무 눈’은 ‘내 얼굴 이 거동이 임에게 사랑받음 직 한가마는’으로, 작가가 조정을 떠나기 전의 임금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 처하게 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자책이 드러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현상 빛옥경’은 임금이 있는 조정을 의미하며, ‘엇디흔 야 니별 흐고’는 이별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하므로, 임금이 있는 조정을 떠난 상황이 드러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조들의 타시로다’에서 자신의 상황을 조율에 의한 운명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거부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므로 적절하다. ④ ‘여엿분 그림재 날 조출 쑨이로다’에는 임금 곁을 떠나 흘로 지내며 임금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탄식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⑤ ‘출하리 쇠여여여 낙월이나 되야이서’에서 죽어서도 낙월이 되어 임금을 비추고 싶다는 충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3** ‘내 스설’에는 ‘내 몸의 지은 죄 되그티 빠혀시니’와 같이 임금과 이별한 상황에 대한 이유가 드러나 있고, ‘내 노래’에는 ‘장안을 도라보니 풍진이 아득하다’와 ‘부귀는 부운이오 공명은 와각이

라’와 같이 자신이 현실을 떠나 자연에 귀의하여 소치기를 하는 이유가 드러나 있으므로 ‘내 스설’을 통해 자신이 현재 상황에 처한 이유를, ‘내 노래’를 통해 자신이 현재의 삶을 선택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14** 허생이 개혁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양반 제도 자체를 손보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허생이 이완에게 세 가지 계책을 제안했으나 이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통해 사대부들의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있다. ③ 허생이 사대부의 자제들을 변발하게 하고 오랑캐 옷을 입게 하라고 한 것은 사대부로서의 명분을 버릴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④ 이완이 허생의 첫 번째 계책(임금이 심고 조려하여 인재를 등용해야 함.)을 거절한 것은 인재 등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고, 두 번째 계책(명나라 후손들을 후대해야 함.)과 세 번째 계책(청나라와 교류해야 함.)을 거절한 것은 대외명분과 예법에만 얹매인 양반들을 비판한 것이다. ⑤ “나라의 자제들을 엄선하여 머리를 깎여 ~ 치욕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15** 허생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은 명분이 아닌 실리를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허생은 흥길동처럼 서민들과 하나가 되어 싸우지 않고 그들을 돋기만 했으므로, 자신이 선비라는 의식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 흥길동은 서민들을 돋기만 한 허생과는 달리 자기 부하들이나 자기가 돋는 아들과 하나가 되어 싸우고 끝에 가서 승리했다고 했다. ④, ⑤ 허생은 자신이 제시한 계책들이 현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라져 버리는데, 〈보기〉에서는 이를 현실을 도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16** 효종의 죽음과 함께 폐기된 복별 계획을 이 글에서 끌어들인 것은, 그것을 이용해 당시의 현실과 사대부를 성토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오답 해설** ①, ③ 〈보기〉의 ‘〈허생전〉에서 복별 문제를 새삼스럽게 들고 나온 이유는 그것을 이용해 당시의 현실과 사대부의 태도를 성토하기 위함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이완은 효종대의 실존 인물로, 그를 등장시킴으로써 작품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⑤ 허생이 제시한 시사 삼책은 당시의 지배 계층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므로 허생이 사라지는 것으로 결말을 처리한 것이다.

**17** 허생이 청나라와의 교류를 촉구한 것은, 청나라의 허실을 엿보고 한족과 결탁함으로써 천하를 도모하여 나라의 치욕을 씻기 위함이다.

**오답 해설** ① ⑦~⑨은 연쇄적인 관계가 아니다. 단지 ⑦을 거절하자 ⑧을 제시하고, ⑧을 거절하자 ⑨을 제시한 것이다. ② 허생이 ⑨에 대해 ⑦이나 ⑧보다 더 실행 가능성성이 높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③ 이완이 ⑨을 거절한 이유는 임금이 신하에게 몸을 낮출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④ ⑨은 명나라 후손들을 후대하는 방안으로, 명나라 군사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19**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는 제시된 주장을 비판적 관점에서 수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런데 ‘지양하다’는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하다.’의 의미이므로 비판적 관점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 웃 소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나)에 이미 제시되어 있으므로 심화 학습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나)에 디자인 도용 사태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심화 학습 내용으로 적절하다. ③ (사)의 마지막 문장에서 2014년 기준 방글라데시 노동자 임금이 한 달에 약 7만 원이라고 하였으므로 현재는 어떠한지 심화 학습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가)에 미국의 사례는 제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웃 구매 횟수와 구매량이 빠르게 증가하였다고만 언급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은 심화 학습 내용으로 적절하다. ⑤ (다)에 따르면 옷을 만들어 가게에 전시하기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보다 더 짧은 기간에 의류를 제작할 경우 이익 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는 것은 심화 학습 내용으로 적절하다.

- 22 ⑤는 (다)에서 찬성 2가 반대 2의 입론에 대한 반대 신문에서 지적한 내용으로, 찬성 측이 입론에서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④ 모두 (가)에서 찬성 1이 입론에서 내세운 근거로 적절하다.

- 23 찬성 2는 ‘청소년이 휴대 전화를 주로 유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상대측 주장에 대해 논리적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나)의 찬성 2의 첫 번째 발언에서, ② (나)의 찬성 2의 세 번째 발언에서, ③ (다)의 반대 2의 첫 번째 발언에서, ⑤ (다)의 반대 2의 두 번째 발언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 24 반대 2의 발언에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휴대 전화를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25 도법 답안

	〈 보	기	〉 의	자	료	를	자	신	의	주	장	의	근
거	로	활	용	할	수	있	는	토	론	자	는	찬	성
2	이	다	.	이	자	료	를	통	해	최	근	들	어
휴	대	전	화	의	교	육	적	활	용	도	의	범	위
학	장	되	고	있	을	뿐	아	니	라	그	비	종	또
한	더	욱	증	가	하	고	있	다	는	자	신	의	주
을	강	화	하	는	데	활	용	할	수	있	다	.	.

# Memo



Memo



# Memo

